

2022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으로 국어 순화는 언어 사용자들이 깊은 사고력과 고운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어 순화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바꾸고,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틀린 말을 바른말로 고치는 것이다. 초창기의 국어 순화는 우리말에서 외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전의 순수한 상태를 회복하려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35년 동안의 일본 지배에서 벗어나자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고 국어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국어 순화 운동이 벌어졌다. 1960년대에는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했고 한글 전용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는 생활 용어, 언론 용어, 학술 용어, 법률 용어, 건축 용어, 스포츠 용어, 종교 용어까지 국어 순화의 범위를 넓혔다. 더불어 비속어를 고운 말로 다듬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전에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일본어 투의 용어가 이제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일본식 어휘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국어 순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나) 국어 순화는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을 가려 쓰는 운동이다. 비속어를 쓰지 않는 것이 ‘고운말’이라면 표준어를 쓰는 것이 ‘바른말’이고, 소통이 어려운 말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쓰는 것이 ‘쉬운말’이다. 이 가운데 쉬운말을 가려 쓰자는 운동은 오늘날 특히 중요해졌다. 쉬운말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표현력을 신장하기 위해 외래어를 포용해야 한다거나 순화를 문장 표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같은 선상에 있다. 사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유어 외에 한자어, 외래어도 순화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어 순화 운동의 초창기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국어 순화의 목표는 언어의 순수성 회복이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쉬운말 찾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순화 대상어 선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단어의 정착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어의 정착도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 계층이 널리 쓸수록 정착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는 정착도가 높은 단어보다 정착도가 낮은 단어를 선정해야 한다. 정착도가 낮은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 공동체의 목표에 부합한다.

(다) 언어 순결주의자들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한다. 그들은 국어의 어휘가 외래어에 감염됨을 걱정하고, 국어 문체가 번역 문투에 감염되어 있음을 걱정한다. 나는 국어가 혼탁하다는 그들의 진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혼탁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어의 혼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외딴섬에 이상향을 세우고 쇠국의 빔장을 지르지 않는 한 국어의 혼탁을 막을 길은 없다. 순결주의자들은 우리말 어휘가 외래어

에 감염되었다고 개탄한다. 특히 그들은 일본제 한자어에 대해서 히스테리를 부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말 한자 어휘의 상당수는 그 원산지가 일본이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 어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서양말의 개념을 옮겨 만든 한자어가 19세기 말 이래 수입된 것이다. 펜을 집어던지고 입을 꼭 다문 채 살기로 작심하지 않는 한, 그 일본제 한자어를 우리말에서 쏘아낼 수는 없다.

1-1.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나) 주장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법률 용어 정비의 주요 내용은 어문 규범을 지키는 것, 문법적으로나 문장 구조 면에서나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것,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꾸거나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 용어 정비의 결과 ‘사위(詐僞)’를 ‘속임수’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교체하고, 일본어 투인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 용어 순화 작업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법률 용어는 학계의 연구나 판례를 통해 축적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소지하다’를 ‘가지다’로 정비할 경우, ‘가지다’의 의미에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지하다’와 ‘소유하다’라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오늘날 <보기>의 ㉠가 순화 대상어라는 의견에 대해 (가), (나), (다)가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30점]

<보기>

작가 이상은 조선식 한자어 대신에 일본식 한자어가 점점 익숙해지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1936년 도쿄로 건너간 후에 썼다가 나중에 《문장》에 유고로 발표된 <실화>에서 일본식 한자 어휘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왜 그러세요. 이 방이 ㉠ 기분 나쁘세요?(기분? 기분이란 말은 필시 조선말이 아니리라). 더 놀다 가세요. 아직 주무실 시간도 멀었는데 가서 뭐 하세요? 네? 애기나 하세요.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와 같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각국의 탄소 배출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치적 규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 주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국가와 같은 배출권의 권위적 할당 기구는 자신에게 허용된 배출 총량을 각 기업에게 적절하게 할당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에게 할당된 허용량 내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한다. 즉 각 기업은 기술 개발 역량이나 여건에 따라서 각자의 할당량보다 많게 또는 적게 배출하면서 전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 제도는 간단한 경제 원리, 즉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싸다면 사는 것을 선택하고, 남에게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것이 더 싸다면 만드는 것을 선택한다는 원리에 근거해서 작동한다. 기업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만약 (                      ㉠                      ),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할 것이다.

(나) 기록적인 폭염, 산불, 태풍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학술 영역에서뿐 아니라 정책적, 일상적으로도 빈번히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틀 내에서 현재 사회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생태적 근대화 이념에 기반한다. 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은 생태 보존과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태 보존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GDP의 1.5~2%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녹색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의 성패를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시장 중심으로 발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환경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적 관리자로서의 국가가 환경적, 분배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생태복지국가는 기후변화 방지, 에너지체계 전환, 새로운 화학물질 관련 정책, 지속가능한 농림축수산업 진흥, 폐기물제조자 책임제, 도시재생, 조세개편, 대규모 공공투자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경제성장과 복지, 친환경을 모두 달성하고자 한다.

(다)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이미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혜택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적은 자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서 친환경적 성장을 이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상품 생산,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녹색 성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마치 “두 배로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다이어트약 광고와 같다.

자원 사용량을 계속 줄여가면서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 국내총생산(GDP)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다.

미국 등 일부 고소득 국가들의 국내 자원 사용량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원 투입이 세계화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량을 수입품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자원 사용량은 GDP와 보조를 맞춰 계속 증가해 왔다. 또한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록 자원이 더 저렴해지면서, 사용되는 자원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하기 마련이다. 기술 개발이나 보존 조치로 인한 효율성 향상이 단기적으로 생태친화적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자원 효율성이 더 높은 경제체제는 물질 사용량이 더 많은 경제체제일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성장에 뒤따르는 생태적인 비용을 회계장부에서 지움으로써 그 사실을 은폐하고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가하는 위해를 시야에서 없애버린다.

전 지구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가와 기업, 개인들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생태변화의 부담과 위험은 적게 감내하고 있다. 확대되는 불평등과 심화되는 생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처럼 여겨져 왔다. 정치적 보수도, 진보도 성장의 속도를 낮추기보다는 파이를 키우려고만 했다. 그러나 세계 정치경제체제의 근본 원리와 권력 관계의 변화 없이도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희망일 뿐이다. 지구에서의 생존이 가능하려면 지금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더 적게 소비하며, 더 많이 공유하고, 더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파이 전체의 크기가 줄어들어야만 한다.

2-1. (가), (나), (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때,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각 30자 이내) [20점]

현재 생태위기의 해결 방향에 대해 (가)와 (나)는 (다)와 달리 (                      ㉠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나)는 (                      ㉡                      )을/를 중시한다.

2-2.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50자 이내) [20점]

2-3. (다)의 입장에서 <보기>의 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탄소 상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유기농 표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 표시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탄소 상쇄 시장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만족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자발적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탄소 중립’이 달성된다. 몇몇 항공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원래 항공권 가격에 탄소 상쇄 비용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빈국의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라고 홍보한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영국의 의사 존 스노(John Snow)는 근대 역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콜레라가 오염된 지하수를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19세기에는 콜레라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콜레라가 도시의 악취나 나쁜 공기를 통해 퍼져 나간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생활 쓰레기나 아무 곳이나 처리했던 인분 등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나온 독기가 사람에게 전파된 결과가 콜레라라고 믿었다. 다시 말해 ㉠ 콜레라는 독기, 즉 오염된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보았다.

\*역학: 전염병의 전파 양상과 경로를 연구하는 학문

(나) 19세기 영국에서 콜레라는 여러 차례 유행했다. 1831년 최초 발병 당시(1차 유행)에는 6,536명이 사망했다. 최악의 콜레라 발병이라고 평가받는 1848년(2차 유행)에는 14,137명이 사망했다. 1854년(3차 유행)에는 스노 자신이 살던 런던의 강북 소호 지역에 콜레라가 퍼졌다. 1854년 8월에 시작된 3차 유행의 초기 2~3주 사이에 소호지역에서만 약 600여 명이 사망했다. 영국 전체에서는 10,738명이 사망했다. 스노가 콜레라의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소호지역에서 지하수를 길는데 사용하고 있던 '브로드가 펌프'였다. 1854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소호지역에서 콜레라로 사망한 83명의 거주지는 브로드가 펌프 주변에 몰려 있었다. 소호지역의 다른 곳에도 펌프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지만 산발적이었다. 한편 당시 브로드가 펌프와 인접한 곳에 도시의 빈곤층을 수용하는 구빈원\*도 있었다. 533명의 구빈원 수용자는 비좁은 공간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콜레라 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구빈원에는 독립된 상수도관과 우물이 있어 수용자가 브로드가 펌프의 물을 마실 일은 없었다.

\*구빈원: 고아나 빈민에게 일과 음식, 잠자리를 제공하는 시설

(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도시 곳곳에서는 기업 소유 수도관이 놓여 수도물이 공급되었다. 수도물이 각 가구까지 공급되기도 하였고 집 근처 물탱크까지만 공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 중반 당시 런던에 물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램베스'(Lambeth Co.)와 '사우스워크 앤 북스홀'(Southwark and Vauxhall Co., 이하 S&V)이었다. 두 회사의 고객은 런던 지역에 총 48만 명이였다. 당시 런던에서는 두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각자의 수도관을 설치하고 경쟁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 48만 명의 고객 중 30만 명은 두 회사의 수도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1848년 2차 유행 당시 두 회사는 모두 템스강 하류의 물을 사용했다. 당시 강 하류의 오염 상황은 심각했다. 런던의 하수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정화 없이 하류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런던 곳곳에 콜레라 사망자가 속출했다. 1852년 램베스는 취수원을 더 깨끗한 강 상류로 이전했지만, S&V의 취수원은 그대로 있었다. 2차 유행(1848년)과 3차 유행(1854년) 당시 런던 지역의 콜레라 사망자 수는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보고, 존 스노는 ㉡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표> 콜레라 사망자 수(인구 만 명당)

	1848년 (2차 유행)	1854년 (3차 유행)
A 지역 (S&V가 단독으로 물을 공급하는 런던의 12개 지역)	135명	147명
B 지역 (S&V와 램베스가 동시에 물을 공급하는 런던의 16개 지역)	130명	85명

3-1. (나)를 이용하여 ㉠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3-2. (다)를 바탕으로 존 스노가 ㉡을 확신하게 된 근거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20점]

3-3. (다)의 내용에서 <보기>의 ㉢, ㉣, ㉤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20점]

<보기>

실험법은 실험을 통해 정보를 얻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험법에서는 연구 대상을, 처치\*를 한 '실험 집단'과 처치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되는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 금연 정책의 도입이나 신약의 제공과 같은 처치로 인해 발생한 집단 간 결과의 차이를 관찰한다. 그 대표적 예가 임상시험이다. 아래는 신약의 효과와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의 주요 원칙을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다른 분야의 연구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임상시험에는 신약을 처방받는 ㉢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 통제 집단이 있어야 한다.
- 환자가 자신에게 ㉤ 신약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
-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성, 연령, 병력 등 기초상태의 특성이 가능한 한 동일해야 한다.

\*처치: 실험에서 연구 대상에 가해지는 일정한 조작(자극, 변화)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마도 한 사람의 죽음은 그와 영원히 이별하게 될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쁜 일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죽음은 죽는 사람 자신에게는 더더욱 나쁜 일이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로 여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에게 왜 나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죽음이 '비존재',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점에 있다. 만약 내가 내일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쁜 것임이 분명하다. 내가 내일 고통이라는 안 좋은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 나쁜 것일 수 있겠는가? '박탈 이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은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나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죽음이 죽는 사람에게 나쁜 것은 그 사람이 더 살았더라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의 죽음은 나에게 ㉠ '적극적 악', 즉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악', 즉 좋은 것이 없어서 나쁜 것에 해당한다. 내일 소풍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되었다면, '소풍이 없음'이라는 비존재는 나에게 나쁜 것이다. 소풍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소풍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오랫동안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수십 년 동안 누렸을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죽음으로 인해 박탈당하는 좋은 것이 많을수록 죽음은 더 나쁘다. 우리가 젊은 사람의 죽음을 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죽음이 비존재임을 생각할 때 이것 외에 죽음이 당사자에게 나쁜 이유는 생각할 수 없다.

(나) 죽음이 왜 나쁜지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만한 합리적인 감정은 무엇일까? 내가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쉬움이나 유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적절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 이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 그것도 가장 끔찍한 종류의 공포로 맞이하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탈 이론에서는 죽음을 소극적 악으로 보기 때문에 ㉡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공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취소된 소풍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는 절대로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소풍이 없음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일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이 비존재이고 비존재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이는 박탈 이론이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죽음을 어딘가에 홀로 단절되어 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야, 이런 공포를 갖는 것은 정당화될 길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죽음을 소극적 악으로만 보는 박탈 이론은 옳은 이론이 될 수 없다.

(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나 자신이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내 장례식 장면을 상상하려 한다고 해보자. 그럴 때에 나는 내가 그 장면의 한구석에 자리하여 구경꾼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 자신이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것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아무도 그 기저에서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 각각은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어떤 종류의 변형 과정을 거쳐 다시 살게 될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4-1. (가)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출산 과정에서 산모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아기와 산모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생존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평균적인 삶을 살 것이 기대된다. 죽음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나쁜지만을 고려할 때, 산모의 죽음이 아기의 죽음보다 더 나쁜 것임에 틀림 없다. 아기에 비해 산모가 살아온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두려움이나 분노 따위의 감정들은 어떤 경우에는 합리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류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가 자신을 해치지 못함을 분명히 인지해도 새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4-3. (다)의 입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의 가능성이 열린다. 왜 그러한지 ㉡의 개념을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20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존경스러운 개미들은 개미집에서 시작해서 분명히 개미집으로 끝날 텐데. 이것이 그들의 꾸준함과 긍정적 태도에 큰 영예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인간은 경솔하고도 흉물스러운 존재여서 아마도 체스 기사처럼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하나만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장담할 순 없긴 해도). 인류가 지향하는 지상에서의 모든 목표의 의미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 달리 말해 삶 자체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2 \times 2 = 4$ 라는 공식으로만 나타나는 목표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실  $2 \times 2 = 4$ 는, 여러분, 이미 삶이 아니고 죽음의 시작이지 않겠는가. 적어도 인간은 이  $2 \times 2 = 4$ 라는 것을 웬지 항상 두려워했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도 두렵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듯  $2 \times 2 = 4$ 와 같은 것을 찾기 위해 대양을 건너기도 하고 그 탐색의 과정에서 삶을 희생하는 것이라 해도, 인간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어쩐지 두려워한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후엔 찾으려 다닐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꾼들이라면 일을 마치고 적어도 돈을 받아 술집에 가고 그 다음엔 경찰서에 붙들려 가는 등, 이런 식으로 1주일 치 할 일이 생긴다. 하지만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와 유사한 식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인간의 내면에는 적어도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이 관찰되어 왔다. 달성 자체는 좋아하지만, 달성을 해냈다는 사실에는 딱히 그런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인데, 물론 이건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희극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말장난이나 마찬가지로 말이다.

하지만  $2 \times 2 = 4$ 는 어쨌거나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놈이다.  $2 \times 2 = 4$ 는 내 생각으로 오로지 뻔뻔스러움에 불과하다.  $2 \times 2 = 4$ 는 거드름 피우는 태도로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는 양손을 허리에 댄 채 침을 뱉는다.  $2 \times 2 = 4$ 가 대단한 것이라는 점에는 나도 동의하지만, 이왕 모든 걸 다 칭찬할 거라면  $2 \times 2 = 5$ 도 가끔은 참으로 사랑스럽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 도스토예프스키, <지하로부터의 수기> 중에서

(나) 내가 등 뒤에 수호천사가 있음을 느꼈을 때 나는 <행복>이라는 제목의 소네트\*를 읊미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아름다움과 사상의 깊이에 있어 보기 드문 작품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처음 4행은 이렇다.

2×2는 영원한 애인  
정열로 영원히 결합되어 4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연인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2×2... } ㉠

남은 부분도 모조리 구구단의 현명하고 영원한 행복에 관한 것이다. 모든 진정한 시인은 불가피하게 콜럼버스이다. 콜럼버스 이전에도 아메리카는 수세기 동안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인물은 오로지 콜럼버스뿐이었다. 구구단은 R-13 이전에도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숫자의 원시림에서 새로운 엘도라도를 발견한 인물은 R-13뿐이다. 사실, 이 기적 같은 세계의 행복보다 더 현명하고 티 없는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강철은 녹이 쓴다. 고대의 신은 고대의 인간, 즉 실수를 범하는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이 신의 실수였다. 구구단은 고대의 신보다 더 현명하고 더 절대적이다. 그것은 절대로, 알겠는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구구단의 엄격하고 영원한 법칙을 따라서 사는 번호보다 더 행복한 번호는 없다. 망설일 것도 오해할 것도 없다. 진리는 하나, 진리의 길도 하나니까. 진리는  $2 \times 2$ , 진리의 길은 4. 만일 이 행복하고 이상적으로 곱셈이 된 그들이 그 무슨 ㉠ 자유에 대해, 즉 명백한 실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부조리하지 않겠는가?

- 자마틴, <우리들> 중에서

\*소네트: 13세기경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짧은 시 형식

5-1. (나)의 ㉠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10점]

5-2. (가)와 (나) 모두에서 “ $2 \times 2 = 4$ ”는 <보기>의 유토피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유토피아에 대한 (가), (나)의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30점]

<보기>

유토피아는 언제나 더 좋은 사회를 희망하는 인류의 욕망을 반영한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도달하고자 했던 사회의 종착역이다.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력에 기대서 인간 사회는 진보해 왔다. 이곳은 완벽한 무결점의 사회이며 개인들은 어떠한 결핍도 느끼지 않는다.

5-3. <보기>의 예술관에 근거하여 (나)의 ㉠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70자 이내) [20점]

<보기>

예술은 기존 예술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다. 예술가들은 그들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에 찬탄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조롱하고 부정하며 뛰어넘고자 한다. 진정한 예술가라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아름다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 도전받지 못할 아름다움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영원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탐구할 때도 인간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의 인간’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다. 가령 아름다운 인간 속의 고약한 인간을, 영원한 진리 속의 부조리를, 혹은 그 반대들을 진정한 예술가들은 다룬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분배적 정의는 권력, 부, 명예, 성직, 의료, 생필품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플라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로운 분배 체제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면서 단일한 분배 방식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의심스럽다.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다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권력, 명예, 부, 여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통해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이해는 다양한 정치 공동체들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의로운 분배 방식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정치 공동체들이 지닌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 타당한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는 이상적 계약론이나 담론 이론은 분배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고유한 자율적인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각의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종교의 영역에서 성직을 분배할 때 신앙심이 적절하며 돈은 부적절하다. 만약 돈이 성직의 분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반면에 시장의 영역에서는 신앙심이 주요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매매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매자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분배 방식에서는 가치 영역의 자율성에 대한 침범이 종종 발생한다.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가치들을 얻게 된다면 여기서 '지배'가 발생하며 그 가치는 '지배적 가치'가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 지배적 가치를 독점하면 이때의 분배를 '전제'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통치 능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정치 권력을 부, 명예와 같은 다른 가치들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전제가 된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지배적 가치를 평등하게 공유하는 '단순 평등' 체제를 추구하는 입장도 있다. 이 체제에서는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특정한 가치를 독차지하는 '독점'은 금지되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지배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상품으로 나와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돈을 갖고 있는 사회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단순 평등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는 부가 지배적 가치이더라도 불평등이 사라진다. 부가 평등하게 소유된다면 다른 가치 영역에서도 독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단순 평등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 결국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며, 이는 다른 가치들의 불평등한 소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점의 허파나 제한이 아니라 지배의 축소를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의 독점은 허용되지만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회를 '복합 평등' 체제라고 한다. 복합 평등 체제에서는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어떤 가치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다른 가치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즉 가치들 사이의 지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그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 등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복합 평등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분배 방식은 ( ㉠ )이며, 그 이유는 ( ㉡ )이다.

물론 복합 평등 체제에서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여러 영역에서 가치들을 독점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모든 분배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관념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합 평등 체제는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 독점을 허용하지만 지배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1. 윗글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65자 이내) [20점]

6-2.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분배한다고 할 때, 윗글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20점]

- <보기>
- ① 한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
  - ②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독점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가치 Y를 분배받아서 안 된다.
  - ④ 사회적 가치 X나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은 정치 공동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 ⑤ 사회적 가치 X의 분배는 평등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 ⑥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회적 가치 X에 대한 독점도 허용해야 한다.

6-3. 복합 평등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특정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면 그 계급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법, 정치, 사상, 종교와 같은 다른 삶의 영역도 지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은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지배 계급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생산 수단의 독점을 폐지하고 공동 소유 제도를 확립하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